



2020년 11월 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 3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1. 3.(화)	담당부서	무역기술장벽협상과
담당과장	박재훈 과장(043-870-5540)	담당자	강민구 사무관(043-870-5542) 윤지혜 전문위원(043-870-5525)

국표원,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, 5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위원회(10.27.~10.30.)를 통해 EU·인도·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였다.

*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, 표준,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

① EU가 도입한 TV,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.

- '20년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 및 시행일 유예를 요청하였으며
-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.

② 인도가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하였다.

-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하여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하였다.

- 또한,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, 시행 연기를 요청하여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.

③ **에콰도르·콜롬비아**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·개선하여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.

-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,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,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하였고,
-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,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하여 우리기업의 부담이 감소하였다.

④ **EAEU***는 '21년 도입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였고,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.

* EAEU(The Eurasian Economic Union): 舊 소련 국가 중 러시아, 벨라루스, 아르메니아, 키르기스스탄, 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(벨라루스를 제외한 4개국이 WTO 회원국)

- 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, 도안 및 세부지침, 시험소 정보 부재에 대해 국표원은 EAEU측에 시행유예와 전환기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EAEU측은 '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고,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.
-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측은 '24년 혹은 '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우리기업 제품의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, WTO회원국(164개)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,
 - 이번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,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규제개선, 시행유예 등을 요청하였다.
 - 그 중,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,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하여 미국,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(STC*)으로 제기하였다.
- * STC(Specific Trade Concerns) :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,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,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

<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(STC) >

중국(6건): ①화장품 라벨 관리방법, ②화장품허가 관리방법(안), ③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관리규정, ④의약품·의료기기 등록비 기준, ⑤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(안), ⑥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(안)


EU(2건): ①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, ②의료기기 규정(안)

인도(2건): 에어컨 규제, 화학물질 관리, **방글라데시:** 전자폐기물 관리 규제

사우디: 건조기 에너지효율, **짐바브웨:** 가전기기 에너지효율, **칠레:** 세탁기 에너지효율

- **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,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,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.**
 - 우선, 11 ~ 12월 중 수출기업, 업종별 협·단체, 전문기관 등과 온·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
 -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/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.

【붙임】 제3차 WTO TBT 위원회('20.10월) 주요 성과(5개국 12건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강민구 사무관(☎ 043-870-5523), 윤지혜 전문위원(☎ 043-870-55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□ 시행유예(3건)/규제개선(3건)/개선검토(6건) 등 총 12건(안전별)

국가	규제명	요구사항(현황)	협의결과(기대효과)
1. EU	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(시험표준부재)	①에너지 라벨링 표시(HDR 소비전력 및 효율등급)를 위한 시험 측정 표준(EN 62087)이 개정 중에 있어 임시 시험 기준안 공표요청 및 시행유예 요청	(규제개선) 시험방법안 공개 일정 확인 및 EU가 국가시장감시당국에 특정상황을 고려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음을 확인 ⇒ 스마트폰, 태블릿의 유럽수출 불확실성 제거 ⇒ 유럽 향 TV 수출(약 100억불 규모) 정상적인 준비 및 판매로 국내 브랜드 점유율 유지('20기준)
2. 인도	에어컨 및 부품 인증	②지정시험소 확보 후 6개월이상 시행유예하고, 부품과 완제품을 순차적으로 시행요청	(시행유예) 전체 지정 시험소가 확보되지 않고, 당장 7개월만 시행유예('20.6.1 → '21.1.1) ⇒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⇒판매가능 ⇒ '19년 삼성 LG 등 연간 1백만대 수준 판매 국내 기업 인도시장 40%점유
	아세톤 BIS 인증 지연	③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지연을 감안하여, 규제시행을 6개월 연기 요청('21년 3월~)	(시행유예) 6개월 시행유예('20.9.14 → '21.3.14) ⇒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⇒ 판매가능 ⇒ '20년 상반기 LG화학 금호첨단화학 등 500만불 수출
	무수프탈산 BIS 인증 지연	④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지연을 감안하여, 규제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('21년 3월~)	(시행유예) 3개월 시행유예('20.10.20 → '21.1.13) ⇒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⇒ 판매가능 ⇒ 애경유화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7,200만불 수출('19년 기준)
3. 에콰도르	건조기 에너지효율규제	⑤판매 허용 에너지효율 등급제 폐지 요청 - 국제기준와 상이하며 기준 자체도 과도	(개선검토) 우리측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제개정 검토 중 ⇒ 우리측 이의제기로 미정인 시행시기의 연기효과 기대(판매금지⇒판매가능) ⇒ '19년 삼성 LG 등 연간 3,500대 수준 판매, 약 2,500천불 수출규모
4. 콜롬비아	에어컨 에너지효율	⑥에너지효율 등급 규제를 1, 2단계로 시행예정이나, 단계별 시행 간격이 크지 않아 대체방안 마련 요청 * 1단계(시행일(미정) ~ '21.12.31), 2단계('22.1.1~)	(개선검토) 시행 후 6개월 이상 경과조차기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 ⇒ 콜롬비아 내 기 판매제품의 라벨 재 부착 작업 없이 판매 가능할 것으로 기대
		⑦1단계 시행일이 지연될 경우의 대안 여부 문의	(규제개선) 룸에어컨에 대해 1단계 기간 중 라벨 변경이 불필요함을 공식화 ⇒ '19년 삼성 LG 등 연간 11,517천불 수출규모로, 시장점유율은 20%수준
5. EAEU	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	⑧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, 도안 및 세부지침 제공 요청 *향후 세부지침 발표 후 기존 재고의 소진 및 관련 업계 규제준수를 위해, 적용 전 제품에 대해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 요청	(개선검토) 수입자, 판매자, 제조사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1년을 연기하는 것으로 검토 중 ⇒ 2022년까지 연기를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함 ⇒ 절차상의 이유로 최종 결과는 20년 4분기에 결정되어 EEC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이라 답변 ⇒ 시행일, 규제 세부내용 등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⇒ '19년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서 146백만불 수출

국가	규제명	요구사항(현황)	협의결과(기대효과)
		⑨전환기간(transitional period) 부여 요청	(개선검토) 기술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정도 전환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답변 ⇒ 시장 내 재고품 처리, 라벨 재부착 작업 등의 이슈사항(인력, 비용) 해소 될 것으로 기대
		⑩무효화된 시험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	(규제개선) 향후 구체적인 시험방법에 대해 나올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공식화 ⇒ 향후 변경되는 EC 지침(Directive)에 따라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변 ⇒ 청소기 제품의 수출 준비 시 불확실성 제거 기대
		⑪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의 에너지효율 규제 적용에 대한 충분한 시간 부여 요청	(개선검토) 기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2024년, 2025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변함 ⇒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에 대해 적용 유예 검토로 판매불가, 가격경쟁력 하락 ⇒ 판매가능 기대
		⑫규정 준수를 위한 시험소 정보 요청	(개선검토) 관련 시험인증기관 리스트를 제공해 줄 것이라 답변함 ⇒ 인증 취득 등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